

미리 보는 '2008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

최첨단 디지털 이미징 세계와 함께하는 나흘간의 꿈같은 여행

사진영상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전시회로 손꼽히는 '2008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이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올해로 17회 째를 맞이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사진 관련 행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 전시회에는 삼성테크윈을 비롯한 메이저 카메라 업체 및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다양한 시연행사와 함께 참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운 체험의 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카메라 업체에서도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최고급 기종을 속속 선보이는 가운데 이번 P&I 전시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카메라 신기술의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취재/박지연 기자

지난해까지 해마다 5월에 치러지던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Photo&Imaging 2008)'이 금년부터는 4월로 앞당겨졌다.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홀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금년에 17회를 맞은 'Photo&Imaging 2008(이하 P&I 2008)'이 각별한 기대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갈수록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해지면서 더욱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카메라 및 액세서리를 찾으려는 기대심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해마다 이 전시장을 찾는 개인 참관객을 비롯하여 프로사진가, 해외 바이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층으로부터의 관심과 성원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 P&I 전시회는 일찍부터 코엑스의 대표 브랜드 전시회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여러 회수에 걸쳐 산업자원부 유망전시회로 선정된 이력을 자랑한다.

올해 전시회에는 국내 토종 카메라 제조업체인 삼성테크윈을 비롯한 소니, 올림푸스, 니콘, 캐논 등 메이저 카메라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의 콤팩트카메라와 지난해부터 시장이 무르익고 있는

DSLR 기종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프린팅 관련으로 다양한 제품 전시와 시연행사가 준비되고 있으며, 사진관련 액세서리 및 관련 소품 업체들도 대거 참여하여 다양한 볼거리·찍을거리 등을 선사하며 사진관련 축제의 한마당을 장식할 예정이다.

주최측, '바이어 마케팅센터' 통해 해외바이어 유치에 적극 나서

코엑스, 한국광학기계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주최측은 P&I 2008이 국내 전시 중 최초로 UFI(Union of International Fairs) 인증을 받은 만큼 국제적인 전시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바이어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손님맞이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친 상태다.

주최측은 올해 해외 B2B 전문사이트와 협력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 진행함은 물론 일본, 미국, 유럽, 인도, 중국, 홍콩 등 주요 지역의 유력 전문지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지속적인 해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많은 해외 바이어가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전시회에는 19개국에서 175개사가 참가했으며, 최대 관람객인 63,656명이 다녀가 사진영상산업 및 P&I 전시회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주최측은 올해부터 한달 앞당겨진 전시 일정과 참가업체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해외 유력 바이어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시작한 '바이어 마케팅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결과에 따라 금년에도 이를 통해 바이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와 함께 사진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말미암아 일반인들의 전시회 참가도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국내외 바이어와 사진애호가 및 일반인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DSLR 등 인기절정의 카메라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난해부터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포화상태와 함께 콤팩트 디카에서 DSLR로 넘어오는 소비자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카메라 업체들은 DSLR 기종을 경쟁적



▶ 'Photo&Imaging 2008'이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 'Photo&Imaging 2008'에는 DSLR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시장이 무르익으면서 관련 렌즈, 메모리카드, 외장스투리지, 후보정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카메라 관련 액세서리 품목들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으로 선보인 바 있다. 올해는 더욱 기능이 고급화·다양화 되고 가격은 더 저렴해진 보급기종 DSLR 신제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관람객들을 설레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테크윈,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등 카메라 메이저 업체들은 얼굴인식, 장면인식, 라이브 뷰, 스마일 셔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이번 P&I 전시회를 통해 대거 선보일 예정에 있다. 특히 캐논이나 시그마를 유통하는 세기P&C 등에서는 올해 초 세계적인 전시회인 PMA 전시회에서 선보이지 않은 카메라 기종 및 렌즈군도 대거 선보일 예정에 있어 카메라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세계속의 한국 카메라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삼성테크윈은 삼성전자가 개발한 CMOS 이미지센서를 적용하여 더욱 강력해진 DSLR 'GX-20'을 비롯한 DSLR 카메라와 렌즈 기종을 선보이고, 820만 화소와 3배줌 이너 렌즈를 채택한 디지털카메라 'VLUU i8'와 Full HD 영상촬영 및 100%에 가까운 색재현율을 보여주는 꿈의 디스플레이 AMOLED를 탑재한 'NV24HD' 등 NV 2세대 제품들을 포함한 카메라 신제품을 10여종 이상 대거



▶ 지난해 열렸던 Photo&Imaging 전시장 내부 전경



▶ 'Photo&Imaging 2008' 기간에도 부대행사와 더불어 업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카메라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DSLR 홍보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GX-20' DSLR카메라를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촬영 스튜디오를 열어 사진 마니아들의 발길을 끌어 모을 전망이다.

'P&I 2008'에 업계 최대규모로 참가하는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에서는 고객들이 캐논의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브랜드의 우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캐논의 제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전문가 강의와 역동적인 사진 촬영을 위한 초대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캐논은 특히 가장 많은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DSLR 제품들과 렌즈들을 대거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신제품 EOS 450D를 중심으로 관람객이 직접 카메라와 렌즈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컴팩트카메라군은 2008년 신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동작인식 기능과 얼굴인식 기능 등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미하여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보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캠코더 및 프로젝터 역시 이전에 비해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

고 한꺼번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동선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서 보다 많은 관람객이 자유롭게 캐논 제품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캐논과 마찬가지로 DSLR을 강점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올해 초 전 세계에 동시 발표한 보급형 DSLR 'D60'을 비롯해, 스타일리쉬하면서도 고기능을 자랑하는 COOLPIX S 시리즈 4종, 초보자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COOLPIX L 시리즈 2종, 기능성을 중시한 COOLPIX P 시리즈 1종 등 콤팩트 카메라 7종과 NIKKOR 렌즈 5종 등 신제품을 중심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작은 크기에 간편한 조작, 그러면서도 보급형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수한 화질이 특징인 'D60'을 전면에 내세워 전문가용 카메라로만 인식되던 DSLR 카메라의 보급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니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니콘의 우수한 화질을 자랑하면서도 간편한 조작성을 갖추고 있어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진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제품 전시와 함께 체험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캐논과 니콘 다음으로 가장 많은 DSLR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올림푸스는 지난해 '라이브 뷰' 기능의 전파는 물론, 타브랜드의 '초경량·초소형' DSLR 카메라보다 더 슬림한 'E-410'와 'E-510'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올림푸스한국은 올해 역시 보급기종 DSLR을 중심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며 DSLR 카메라 홍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SP550UZ, 뮤770SW 등과 함께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콤팩트 카메라의 다양한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이다.

타 브랜드에 비해 뒤늦게 DSLR 시장에 합류하며 지난해 '알파 100' 한기종만을 선보였던 소니코리아에서는 올해 더욱 강력해진 DSLR 라인업을 선보이며 집중 흥



▶ 'Photo&Imaging 2008' 기간에는 촬영뿐 아니라 셀프인화코너 등 출력업체에서 마련한 다양한 출력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지난 2월 28일 영동호텔에서 있었던 시그마 DP-1 신제품 발표회에서 세기P&C 이봉훈 대표가 시그마 카메라를 모델들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보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에 빠른 자동초점을 지원하는 라이브뷰 기능과 LCD 틸트 기능을 갖춘 DSLR 알파300과 알파350을 출시한 소니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알파 플래그십 모델에 대한 비전과 함께 DSLR 플라인업을 향한 소니의 의지와 앞선 디지털 이미징 기술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신개념 HD SLR인 '알파700'과 함께 신기술이 내장된 다양한 기능의 콤팩트 카메라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소니는 얼마전 신제품으로 발표한 3차원 입체 풀 HD 기술에 얼굴인식 기능 등의 부가기능까지 두루 갖춘 풀HD 핸디캠 4종('HDR-SR11(60GB)', 'HDR-SR10(40GB)')을 비롯한 핸디캠 라인업도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고급기종의 콤팩트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카메라 업체에서도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최고급 기종을 속속 선보이는 가운데 이번 P&I 전시회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카메라 신기술의 경연장이 될 전망이다.

시그마 제품을 유통하는 세기P&C에서는 1410만 화소 포베온 이미지센서를 내장한 콤팩트 디카인 'DPI'을 이번 P&I 전시회에서 본격 공개할 예정이다.

DPI는 콤팩트카메라 최초로 DSLR CMOS 이미지 센서를 내장한 제품으로 기존 콤팩트카메라에 내장되는 이미지센서보다 약 12배 가량 큰 이미지센서를 채택하여 같은 화소 콤팩트 디카보다 선명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기P&C는 전시기간동안 'DPI'와 함께 시그마 렌즈 신제품 8종도 함께 선보이며 관람객 대상으로 체험행사와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P&I 2008 세미나 일정

요일	시간	강사	주제
4.10(목)	13:30~16:30	강승찬 「딸기케이크의 인물촬영 레시피」의 저자	인물사진 완전정복 가이드 (인물사진의 기초에서 완성까지)
4.11(금)	11:00~14:00	김대욱 중앙대학, 숭실대학, 수원대학 강사	사진가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사진
	14:30~16:30	정승익 「좋은 사진을 만드는 사진구도 / 노출」의 저자	좋은 사진을 만드는 사진구도
4.12(토)	10:00~12:00	임병호 「광고와 사진이야기」의 저자	광고사진
	13:00~15:00	김홍수 동우대학 사진과 교수	디지털존시스템
	14:00~17:00	최창호 한국색채학회 이사 / 계명대학교 사진디자인과 강사	CMS의 기초와 라이트룸을 이용한 RAW파일 활용
4.13(일)	10:30~13:30	곽윤섭 「나의 첫 번째 사진책」저자	프레임 구성과 의미있는 사진 찍기 / 파리포토 2007
	14:00~16:00	장화영 「엄마의 카메라」저자	이야기가 있는 사진 만들기 : photo story를 통한 family branding과 community branding

P&I 벤더세미나

사진·영상 분야	
컬러라임컨셉그룹(주)	PANTONE Pantone Color & Digital Imaging Conference(Officail Event)
컬러라임컨셉그룹(주)	DATACOLORDataclolor Digital Color Management Seminar(Officail Event)
애플트리팩토리(주)	사과나무스튜디오의 경영 전략 및 2008년 베이비 시장 전망
(주)존시스템	사진인을 위한 휴대폰/디카 인화의 통합 솔루션 제시
광학 분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밀광학부품 및 광학계 개발 : 국내외 현황
에이옵티스(주)	비구면 렌즈금형 최근기술동향

광학 세미나 · 사진공모전 등 다채롭고 알찬 내용의 부대행사 가득

주최측은 이미 아시아에서 수준 높은 사진영상 관련 행사로 자리매김한 이번 전시회를 국제적인 전시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대행사로는 국내최초로 사진 전문 포토페어인 Pre SPF(Seoul Photo Fair)를 4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 Seoul Photo Fair를 통해 코엑스는 국내 10여개 갤러리의 100여명의 사진작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 최고의 프로사진가협회인 PPA의 직접적인 공개심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Asia Pacific Print Competition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또한 유명 사진작가 및 저자들의 세미나와 PPA & ASP Loan Collection, 김영갑 사진전, SLR 클럽 사진공모전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공동 주최자인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는 광정보 입출력 분야와 관련된 광학부품 및 광학계 기술동향에 관한 벤더세미나를 준비했다. '정밀광학부품 및 광학계

개발 : 국내외 현황' 이라는 주제로 표준과학연구원의 이인원 박사가, 또한 '비구면 렌즈금형 최근기술 동향' 이라는 주제로 에이옵틱스의 김부태 사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국내 광학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사진영상 및 광학업계의 정보교류와 내수기반 확대,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의 목적으로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자원부를 비롯하여 SLR-CLUB.COM, PPA, 대한사진영상신문 등이 공동 주최로 해마다 개최되는 P&I 2008은 금년에도 사진영상산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시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www.photoshow.co.kr'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할 경우 무료 참관이 가능하다.

- 문의 :
- P&I 2008 사무국(전화 (02)6000-8133/1068)
- 한국광학기기협회(전화 (02)3481-8931)

P&I 참가업체 리스트

거인부락	매틴	애플트리 팩토리(주)	친구사이
결혼만들기	(주)미디어브리지	(주)에스엠피	캐논코리아 컨슈머이미징(주)
(주)굿스굿	미디어에인(월간포토넷)	에이스상사	(주)캐리마
그린촬영시스템(주)	미주리코알프	엔젤피아	컬러라임컨셉트그룹(주)
글로벌아트	밀레니엄옵틱칼시스템	(주)엠피코퍼레이션	(주)케이스코리코리아
(주)감상	본젠코퍼레이션	어울미디어(비디오플러스)	클로버아트
나래인터내셔널	비씨프레임	영수산업	팅커벨
(주)넥스트다이아	(주)뽀사시	예닐곱	포토벨리
(주)니콘이미징코리아	사진사랑	예술도서	포토플러스
대광엔터프라이즈	삼성테크원(주)	오로라라이트뱅크	(주)필름나라
대한사진영상신문	삼양테크	(주)오우선 테크놀로지	한국물가정보
델가	삼	올림푸스한국(주)	한국액자
동화여행	서울라이트	원배경	한맥배경
두두앨범	세기P&C(주)	웰퍼스트	헨리포토
(주)두리코씨엔터	(주)소이전자 과천지점	유림액자	현대포맥스
드라마포토	시너스	유일포토아트	현대 포토닉스
디지털그리코나	(주)시큐라인	유한기획	현대포토닉스
디지털월드	신자상사	이비엠텍코리아	(주)호토시
(주)디지털캐치	(주)싼타로사테크빅	(주)이지프린트	희망개발
(주)디카팩	(주)씨비엘	제이앤씨	S.M개발
로코코(포아트)	아트레	(주)제트코	
마이크로닉스(주)	아트레코	(주)준시스템	

*위 참가업체 리스트는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